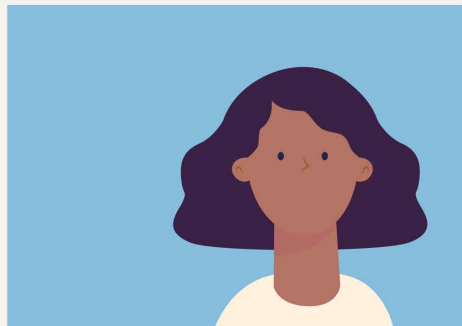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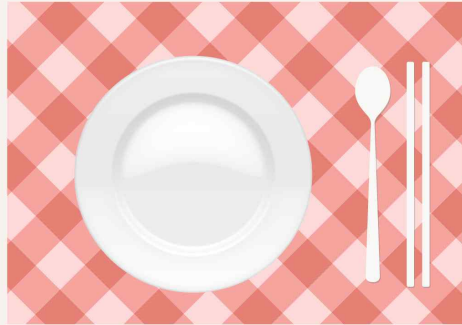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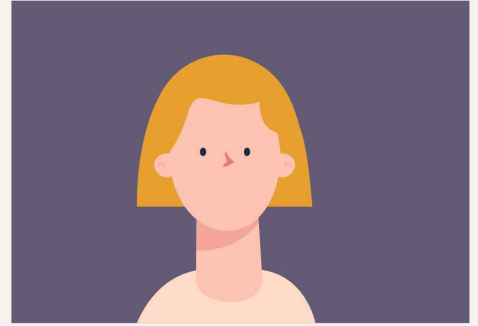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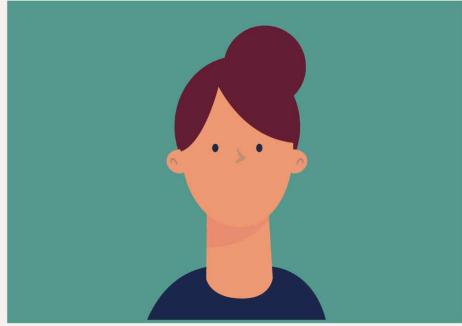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11)



나는_오늘_여성혐오로_배앗긴_양식을_되찾으러_간다

일시: 5월 25일 화요일 늦은 8-10시

신청: 구글 폼



내용: 1부: 여성주의 예배

2부: 우리들의 이야기 나눔

후원: 카카오뱅크 3333-13-2401398 (ㄱ 7 ㄱ)

<함께하는 사람들>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기독교위드유센터, 무지개신학교, 믿는페미, 서울YWC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여학우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YWCA연합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민중신학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성정의위원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여학생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회, 향린공동체 성정의위원회, #ChurchToo#있다#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마태복음 6:11)

(나는_오늘_여성혐오로_빼앗긴_양식을_되찾으러 간다)

이름이 : 폴짝(믿는페미)

타종/회중역할 : 채승희(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민중신학회)

반주/특송 : 수영, 화경, 해림(기독여민회)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5주기를 맞아 그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 사회와 교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와 폭력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되었지만 여성혐오와 차별로 빼앗긴 풍성한 양식을 되찾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일상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타종과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1. 타종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

2. 예배로의 초대 -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의 일터와 가정, 공동체와 삶에 스며 우리의 일상을 갉아먹는 여성혐오와 차별, 배제와 폭력은 하나님의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그날그날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계와 더불어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양식을 빼앗는 악을 허물어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가 밟고 선 이 땅에 평등과 기쁨, 회복과 치유로 임하여 주소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3. 찬송

우리 오늘은

(입례송)

사백수영
곡 비로소

우 리 오 늘 은 혼 자 가 아 니 다
 이 제 껏 흘 린 눈 물 많 으 나
 우 리 가 비 로 소 얼 굴 을 마 주 하 니
 내 주 여 이 곳 에 오 소 서

4. 우리의 기도 1 코로나 시대 위기에 처한 여성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 노경신(NCCK여성위원회)

위로의 하나님, 코로나 시대는 우리의 일상과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여성이 실직, 고용불안, 돌봄 노동의 부담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난과 위협을 당해 죽음의 문턱 가까이 있는 여성들의 고통에 응답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을 보듬는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소서.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평 화의 하 나 님 이 곳 에 오 소 서 - 당 신의 나 라 를 여 기 에

5. 우리의 기도 2 일터에서 차별받는 여성을 위한 기도 - 김혜원(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여학생회)

사랑의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행하고 느끼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하는 자유를 빼가지 않게 하시고, 편견으로 스스로를 정의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소서. 차별받는 일터를 넘어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또한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 당신의 나라를 여기에

6. 우리의 기도 3 착취당하는 생명, 생태계를 위한 기도 - 김순임(서울YWCA)

생명의 하나님, 당신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며 기뻐하셨던 이 땅이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생명을 쉬이 착취하고 파괴해버린 우리의 완악함을 깨닫게 하소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피조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살고 살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소서.



생명의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 당신의 나라를 여기에

7. 우리의 기도 4 디지털 성폭력의 정의로운 해결과 회복을 위한 기도 - 유에스더(#ChurchToo#있다#있다)

정의의 하나님, 디지털 시대가 우리의 일상을 더욱 치밀하게 조여오고 있습니다. 타인을 억압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악함은 치유하시고, 도리어 음해하기 바쁜 입술들은 정결케 하옵소서.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고통 중에 놓인 이들에게, 영원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소서.



정의의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 당신의 나라를 여기에

8. 공동찬양

기도하는 이유

사이렌아 신화경
곡 신화경 (2021)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같은 크고 고상한 당신의 진리 에
 5. 달을 수 없는 내일 상 앞에 때론 좌절하고 또 절망 하지만 그
 9. 진리를 포기 하지 않고 이 절망을 외면 하지 않고 그
 13. 소망을 내 마음 에 품고 오늘 도 기도안 에 머문 다
 17. 기도안 에 머물며 버릴 수 있기를 진리 곁 에 머물며 그 날 을 기다 리기를
 21.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평화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
 25. 정의의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당신의 나라를 여기에
 29. 모든 것이 기도하는 이유 모든 것이 기도하는 이유

9. 말씀 읽기 - 김하은(기독교반성폭력센터)

[마가복음 7:24-30, 새번역]

24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25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26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27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

28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29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30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10. 말씀 펴기 -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강하니(대한성공회)

11. 성찬 - 공동 집례 : 민아름(여민교회), 정혜진(기독여민회)

■ 성만찬 초대와 응답

민아름 : 누구든지 오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매일매일 있어야 할 양식을 간구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내 몫의 일용할 양식을 누가 가로채 간 적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정혜진 : 이 성찬을 통해 확인받고 기쁨으로 증언합니다.

회 중 : 일용할 양식을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 성만찬 제정사

민아름 :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드리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드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주는 내 몸입니다.”

정혜진 :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드리고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드십시오. 이것은 여러분과 많은 이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 흘리는 새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십시오”

회 중 : 억눌리고 호소할 길 없는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 성령임재의 기원

정혜진 : 모두 빵과 포도주를 향해 오른손을 뻗고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빵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회 중 :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를 본받아 정의와 생명과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 주의 기도(여성들의 주기-도문)

민아름 : 다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여성들이 응답한 기도를 드립니다.

회 중 : 주기도문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분!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당신의 뜻에 우리의 삶이 기억되고
우리의 삶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날 당신의 은총이 깃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양식을 욕심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기 위해
죄 지은 자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 알아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
힘 있는 자의 넘어짐을 작은 자의 탓으로 돌리지 않게하시고,
여성을 시험에 들게 하는 존재, 유혹하는 존재라고 여기는
뿌리 깊은 혐오와 차별 속에서 우리를 속히 구하여 주십시오.

차별 없는 나라와 주변으로부터의 권세, 평화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 분병례

민아름 : 우리를 위해 상하고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회 중 : 아멘

정혜진 :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회 중 : 아멘

다같이 :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 감사의 기도

민아름 :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하여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별, 성적 지향, 외모, 나이, 장애,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출신지역과 국가, 피부색, 언어,
사회적 신분, 학력, 고용형태, 전과,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 일용할 양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혜진 :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양식을 누리고 온전하게 되어,
차별과 억압으로 뒤틀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회 중 : 아멘, 우리로 하여금 폭력과 불의, 죽음과 고통으로 가득찬 이 사회에서 살리고 살려내는 일꾼으로 세우셔서
그 일에 온전히 정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12. 결단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Eliza E. Hewitt

Chords: C#m, G#m, A#m7(b5), B/A, C#m, G#m, A, B7, D9, E, E/G#, A, D, B, E, E/G#, A, B, E

Lyrics: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근 심있 - 으 - 라 -
 그 두려움 - 이 변하여 내 기도 되 - 었고 -
 내 주 는 자 - 비 하 셔서 늘 함 께 계 - 시고 -
 내 주 와 맺 - 은 언 약 은 영 불 변 하 - 시니 -

5
 십자가 밑 - 에 나 아가 내 짐을 풀 었네
 전 날 의 한 - 숨 변 하여 내 기도 되 었네
 내 궁핍함 - 을 아 시고 늘 채워 주 시네
 그 나 라 가 - 기 까 지는 늘 보 호 하 시네

11
 주님을 찬 송 하 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15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13. 축도 - 민아름(여민교회)

지금은 이 땅의 차별과 억압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존재를 자신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가운데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의 연대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삶을 빼앗긴 이들과, 혐오와 차별로 아파하는 이들 위에 그리고 서로에게 곁을 내어주며 함께 살아가기로, 살아남기로 다짐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길 간절히 비읍니다.

○ 2부 - 우리들의 이야기 나눔

예배 후 2부 순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모아 진행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양식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나요? 예배를 통해 어떤 양식을 채움 받으셨나요? 감동과 위로, 선물이 가득한 2부 순서에도 함께해 주세요!

✦ 여성들의 주기-도문 설명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며 주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이 가부장적, 남성중심적인 시선으로 번역돼 있음에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주기도문의 본래 뜻과 다르게 몇 구절은 왜곡되게 해석되며 힘 있는 자의 변명을 합리화하는데 사용되는 현실을 직시하며, 2021년 여성주의 연합예배공동체에서 여성의 시선과 경험을 반영하여 주기도문을 재해석하고자 합니다. 모든 여성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자’는 아니지만 억눌린 자, 약한 자, 작은 자는 ‘여성의 얼굴’을 띠고 있기에 여성의 경험과 관점에서 주기도문을 새롭게 살펴보는 일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기도문이 여성들에게 ‘주기’(empowering)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아 ‘돌려-주기’,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는 영역에서 여성에게 ‘권한-주기’, 자신이 가진 것을 감사하며 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기’ 등과 같은 여성주의적 역동과 실천을 기대해 봅니다.

❖ 수고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 우리의 기도 작성 : NCCK여성위원회, 서울YWCA, #ChurchToo#있다#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여학생회
- 여성들의 주기도문 초안 작성 :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 성찬문 초안 작성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 웹자보 / 홍보물 제작 : 한국YWCA연합회, 믿는페미
- 현장예배 촬영 및 디렉터 : 향린공동체성정의위원회
- 제작 총무 / 회계 : 믿는페미
- 2부순서 / 온라인 신청 관리 : 기독교반성폭력센터, 믿는페미, 한국YWCA연합회
- 촬영 : 한국YWCA연합회, 무지개신학교
- 예배음악담당 / 섭외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여학우회, 기독여민회
- Staff 식사준비 / 순서지 제작 : 서울YWCA

❖ '말씀헌금' 후원자 명단

곽이슬	김서현	녹 록	뉴림	
리 지	민숙희	번 들	서울YWCA여성참여위원회	
유혜경	윤은희	장근지	최규희	
최소영	최은영	하재형	홍보연	익명 3명

❖ 공간후원 : 향린교회